

설비인의 자세와 긍지

글/이봉규(건설기술교육원 기계과 교수)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관심이 가는 내용이 있다.

첫째는 중동사태에 관한 보도요 둘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행 과정이다. 이 두가지 상황 변화는 전 국민은 물론이지만 설비업체나 설비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기술 개발은 뒤로 하고 썩 임금에 의존하여 성장만을 추구하던 시대는 끝나고 곧 불어닥칠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대처는 설비 기술자들의 과제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기계적 기술자들의 보수 교육을 전담하는 나에게도 지대한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요즘 돌이켜 보면 70년대 중반에 불어 닥친 중동 건설 붐을 타고 해외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할 때 국내의 설비기술은 기계공학이나 관련 분야를 전공한 기술인에 의하여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때이다. 이때 급격한 기술 인력의 필요에 의해 기계공학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건설회사의 설비 분야를 담당하는 일원으로 흡수되어 급격히 양적인 팽창을 이루기 시작했다. 중동건설 붐이 최고의 절정을 이루던 80년도에 보수교육을 시작하면서

나는 처음 만났던 설비 기술자들의 자신감과 패기에 찬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내가 과연 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10여년이 지난 지금 지난일을 돌이켜 보면 어림פות이나마 설비 기술 및 기술인들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5년 주기의 기술자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보니 나는 전국의 설비 기술자들과 누구보다도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요즘 두번 또는 세번 만나는 기술자들도 늘어 가고 있고 간혹 설비 분야를 떠나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 어찌 5년 혹은 10년 만에 만나는 사람이 반감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는 “안녕하십니까” “또 만나게 되었군요” 하면서 한마디 더 추가하게 된다. 그 말은 “다음에는 만나지 맙시다.”(기사과정이 아닌 기술자 혹은 경영자 과정에서 만나자는 뜻으로...) 라는 인사말이다. 또 3주 과정을 마치고 헤어지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인사말이 생각나게 된 것은 수많은 설비 기술자들을 만나고 교육을 담당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자.

10여년 전 건설붐이 한창이고 건설업이 호황을



누릴때 건설이 무엇이고 설비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던 기계과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설비 분야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몇해가 지나지 않아 몸담고 있는 분야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자신들의 위치나 대우가 소홀하고 분야가 좁고 등등의 이유에서...

그후에도 건설기계 기사가 담당하던 분야에 공조기사도 담당할 수 있게 되면서 또 한번의 갈등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여러분들도 공부하여 냉동공조기사를 취득하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었다.

또 현장 설명시 자격증의 불필요 조치가 내려진 후에는 수업시간에 수업진행 보다는 불평 불만의 대상이 되어 곤욕을 치룬적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기술자가 없습니다” 또는 “회사 생활도 할만 합니다” 그동안 들어오던 불만에 찬 소리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들을 적에 나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제는 전문적인 설비 기술자를 배출하는 교육 기관도 많이 설립되었고 건물의 고급화, 대형화, 첨단화 추세에 따라 설비 분야도 넓어지고 기술자들의 지위향상과 권익 보호를 대변해 줄 협회도 설립되어 기대하는 바 크다.

이제 설비 기술인들의 할일만이 남은 것 같다. 요즘 HA, FA, OA, BAS 또는 Intelligent Building, 스마트빌딩등 미처 우리가 이해하기도 전에 새로운 첨단 기술 또는 신용어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다.

이제는 국내외의 상황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자의 자세는 지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인 정신으로 임해야 하겠다.

곧 불어닥칠 고유가 시대와 개방 경쟁시대를 대비하여 부단한 기술개발과 능력의 배양만이 자신을 빛내고 설비업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건설 분야에서 설비가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며 어느 분야에 종속되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리고 오히려 주도한다는 정신적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설비인의 위상도 설비와 관련된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인 만큼 앞으로는 더욱 노력 하여야 하겠다. 나 역시 건설기술 교육원에서 설비기술자들의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한사람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끝으로 모든 기술인은 본 교육원에 대해 타성적 차원을 넘어 평생교육과 자기 혁신의 도장으로 임해 주면 감사하겠다. 보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설비 분야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91년도에는 설비 전산 응용반을 신설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하려 한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라며 보다 알찬 교육을 위하여 끝없는 관심이 기대된다.

